내 모습 이대로는 못 받으신다

(예레미야 51:1~64)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2.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3.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4.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5.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6.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모습 이대로는 못 받으신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못 받으신다'
본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다시 쓴다면 "십자가 방식과 바벨론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찬송가 214장의 후렴 부분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가사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D. L. 무디(1837-1899)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 집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복음을 듣던 한 소녀가 목사님 앞으로 다가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살고 싶고 주님의 더 큰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영적으로 깊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가득히 펼쳐져 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작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소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 성경을 읽을 수 없습

니다. 그리고 몸도 약하고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실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럼! 받아주시고 말고"라고 대답했고 소녀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무디 전도단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소녀의 기도내용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성가대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 해밀턴(Eliza H. Hamilton) 여사가 시를 쓴 것이 가사가 되었고, 또 음악을 통해 무디 목사님의 평생 전도 동역자였던 아이라 데이빗 생키(Ira David Sankey)분이 가슴이 불붙듯 하여 피아노로 곡을 붙여서 214장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은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적 혹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 감동을 은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러한 바람을 갖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혹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신앙적 진실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드라마나 소설 혹은 이 세상 곳곳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글을 못 읽는 가난한 소녀가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감동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녀는 글을 배우지 못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몸까지 약하고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니 감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으로써 합당한 감동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소녀에게 정말로 복음적인 교훈을 주고 싶었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얘야! 그러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 만큼 유식하고, 몸도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너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라는 물음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구원의 조건을 세속인 가치의 유무로 판단하려하는 생각을 깨

뜨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복음의 진실을 알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속적 가치가 없는 자신이 환대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복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니 인간적 감동은 생기겠지만 실제로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병약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든, 건강하고 많이 배웠고 부유하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모습은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자만을 받아들이십니다. 결코 내가 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었고 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자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죄를 엄청나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사람뿐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정말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받아들여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절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여주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없고 능력은 없지만 주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사용하시고 쓰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배신하고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늘 십자가를 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였던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님을 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약하든 강하든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세상에 대해

죽은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계기이자 채찍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디 목사님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더 소녀에게 "부자는 주님이 더 받아주실까? 배운 사람이라면 주님이 더 받아주실까? 건강한 사람을 더 쉽게 받아주실까? 아니야. 건강해도 부자여도 너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야하고,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되어야 주님은 받아들여주실 수가 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이 앞장에서부터 계속됩니다.
바벨론을 기어코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53절을 보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라도 원한을 갚으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바로 바벨론 방식의 삶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성과 성전을 없앤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으로부터 바벨론 방식의 삶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한 예언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예언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성과 성전에 대해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돌아갈 것이 예언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루살렘성과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성과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상번제 방식의 삶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방식의 예표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모든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번제의 목적이고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의 상황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일을 마음에 담고, 직장의 일을 마음에 담습니다. 무엇이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현실이신 상태에서 삶은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여기는 상태로부터 다른 모든 일들도 시작

되어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에 대한 일, 사업과 인간관계를 비롯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첫 번째 현실이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첫 번째로 담고 삶을 시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번제의 어린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으로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바벨론 방식입니다. 바벨론은 상번제가 드려지는 성전을 파괴한 자들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묵인하고 유지하고 강화함이 바로 바벨론 방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딸이 4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이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유튜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을 길이 있는지를 문의를 해 오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학생활을 한지 4년이 된 딸이 기침이 심해서 집에 돌아와 쉬게 되었는데 병이 잘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폐렴으로 폐가 다 녹아서 없어질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중국이 공기도 좋지 않고 잘 먹지도 못하고 무리해서 공부를 하다가 폐렴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병원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태국의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송에만 1800만원이 들었고 또 에크모라는 기계를 쓰는데 1000만원이 들고 약값이 1000만원씩 들었다 합니다. 모든 연락망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힘을 모아 경비를 마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병에 걸린 딸보다 크게 느껴지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과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상황을 마음의 현실로 느끼기 위해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이메일의 내용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영적인 싸움을 응원하는 답장을 쓰면서도 만약 이러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난다면 이러한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대의 상황이 될 때에는 선교사님께서 저를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병이 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학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있는 상황보다도 살아계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예로 든다면 병든 딸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게 하는 이 모습 이 대로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병든 딸을 첫 번째 현실로 삼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삼기만을 바라십니다. 여호사밧 왕의 일화를 생각해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에 의해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은 적군들을 현실로 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현실로 여기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과 같이 세상이 마음을 침략할 때에 그러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삶을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려는 삶을 막는 유일한 길인 성전의 상번제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바벨론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존재합니다. 목사님이 그러하다면 세상을 첫 번째 현실로 여기는 교인들의 상태를 묵인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필연적인 멸망 예언이 거듭해서 반복됩니다. 이 예언을 들을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 예언을 읽은 후에 돌에 묶어 강물에 빠뜨리게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눈에 비치던 바벨론이 너무나 강대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바벨론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광활한 영토에는 도로가 바둑판처럼 펼쳐졌고, 세계7대 불사사의로 불리는 공중정원이 만들어졌으며, 이중성벽이 도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문화 경제 군사력 천문학 건축학 등이 융성했습니다. 약소국가였던 유다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벨론이야말로 애굽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유다 포로들에게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는 무척 짧았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고작 150년 만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 방식의 번영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것을 묵인하고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바벨론 방식이 됩니다. 마음에서 첫 번째 현실로 느끼는 세상이 번영하기를 바라며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을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을 출발한

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바벨론 방식의 번영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조차도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펼쳐져야 될 일들의 일환으로 부흥이나 예배당 건축이 마음에 첫 번째로 와 닿게 되니 바벨론 방식의 번영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상번제의 어린양을 기억하며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6절을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45절에서도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고 50절에서도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망해서 없어진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서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서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상번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의미가 되살아나야 하나님을 마음에서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의 상태를 상번제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입으로 부르던 여호와 하나님께 비로소 마음이 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세상 것을 품은 내 모습 이대로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 믿어도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바벨론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바벨론 방식의 번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질색하시는 삶이 되어버리고 반드시 멸망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로는 반드시 세상을 우선적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상번제를 떠올리듯이 십자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생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입으로만 불렀던 하나님이 마음에서 첫 번째로 느껴지는 현실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첫 번째 현실로 여겼던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무디 목사님께 나왔던 가난하고 병약했던 소녀나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이나 내 모습 이대로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 현실로 느낄 수 있습

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을 출발해가는 바벨론 방식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끊어지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 되시는 십자가 방식만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